

부위원장 모두발언

-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-

2017. 10. 26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- 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
- ☐ 오늘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**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과 발전방향**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
- ☐ 금융위는 **혁신성장**을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는 「**생산적 금융**」이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
 - 생산적 금융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**자본시장**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**과감하고 혁신적인** 자본시장 개선방안을 모색 중
- ☐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**괄목할만한 양적성장**을 이룩하면서 **국가경제 발전**에 기여했다고 생각
 - * 증시시가총액 : 1997년 78.1조원 → 2017.9월 1,783.2조원
 - 채권발행잔액 : 1997년 239.2조원 → 2017.9월 1,819.5조원
- ☐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**모험자본 투자 촉진**을 통해 **미래 혁신산업**의 성장을 지원하는 **자본시장 본연의 기능** 수행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봄

- ❶ 저금리 기조 등으로 확대된 **시중 단기유동자금**이 **코스닥 시장**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미미하고,
- ❷ '13년 이후 **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부동산시장을 상회***했음에도 **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추세**를 지속하는 등 **코스닥 시장**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

* 주식 및 부동산시장 지수 추이 (부동산 '13년 = 100p) [참고1 참조]

	'13말	'14말	'15말	'16말	'17.8말
코스닥	500.0	543.0	682.4	631.4	657.8
(증감율)	(0.7%)	(8.6%)	(25.7%)	(△7.5%)	(4.2%)
전 국	94.1	96.9	102.5	103.4	104.2
(증감율)	(1.6%)	(3.0%)	(5.8%)	(0.9%)	(0.8%)

2 現 자본시장에 대한 진단

□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등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

① **(자산의 특성 측면)** 부동산은 자산가치 뿐만아니라 사용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자산가치만 있는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**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**이 필요한데

- 우리의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유인책을 찾기 어려움
- * 美·日·英 등 금융선진국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과 소득 공제 등 여타소득(근로·임대·이자소득 등)에 비해 우대혜택 제공

② **(투자자 측면)**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장기투자성향의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하나 정책자금·연기금 등의 코스닥 투자는 미미한 수준

- * '17.9월 현재 연기금의 주식투자(134조원)중 코스닥 투자는 2%(3조원) 수준 ('16년말 기준 코스피, 코스닥 시총 비중은 코스피 87 : 코스닥 13 수준)

③ **(기업 측면)**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기업 가치가 절하되는 **코리아 디스카운트**가 지속되고 있음

- * PER('16): (한) 10.0, (미)16.4, (일)17.7, (인도)15.2, (말레이시아)15.3

④ **(시장 측면)** 코스피·코스닥 시장간 경쟁 없이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코스닥의 독자적인 경쟁력 제고와 혁신기업 유치 등 발전 노력이 미흡

⑤ **(금융투자업계 측면)** 금융투자업이 단순 중개업 중심에 머물러 있고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함께 성장하는 역량이 부족

- * 국내 증권사 수익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0~50% 수준으로 미국(14%), 일본(17%)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

3 자본시장 혁신 방안

□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초로 정부는 자본시장이 **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**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

①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**상장제도** 전반을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여 **전면 재 정비**

- 코스닥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**세제 인센티브** 제공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

②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**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고**될 수 있도록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**신규 벤치마크 지수** 개발

- 기타 다양한 전문가·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참여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강구

③ **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**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개혁 방안의 **시장 착근을 적극 지원**

- 지난 9월 회계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**주기적 감사인 지정제¹⁾,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²⁾**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됨

- 1) 모든 상장법인 등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
- 2)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(감사 또는 감사위원회)로 이관,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 및 대표이사의 주총보고 의무 등

- 기업 스스로,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**회계처리 역량을 강화**할 수 있도록 **회계담당자 등록제 도입, 회계 교육 지원** 등을 적극 추진

④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여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

- 거래소 경영 평가시 코스피·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스닥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

⑤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·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

-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
- 금융투자업자가 단순 투자 중개에서 탈피하여 혁신기업의 성장 과실을 함께 공유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'관계형 금융' 확산을 유도

4 맺음말씀

□ 자본시장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신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함께 혁신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기를 기대함

-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

□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마련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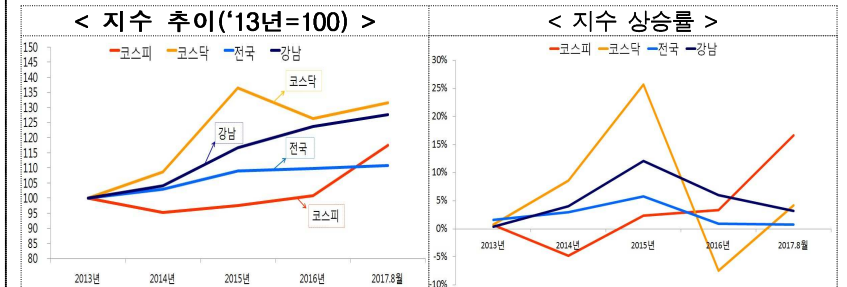
□ 감사합니다.

< (참고 1) 부동산과 주식시장 수익률 비교 >

□ '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와 부동산 지수보다 높은 상승세 시현

<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지수 추이 (부동산 '13년 = 100p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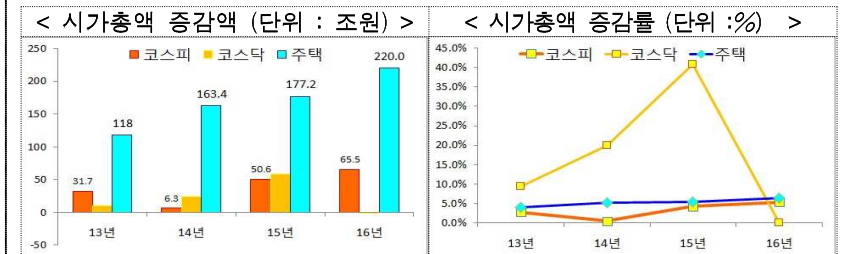
		'13말	'14말	'15말	'16말	'17.8말
주식	코스피	2,011.3	1,915.6	1,961.3	2,026.5	2,363.2
	(증감율)	(0.7%)	(△4.8%)	(2.4%)	(3.3%)	(16.6%)
	코스닥	500.0	543.0	682.4	631.4	657.8
	(증감율)	(0.7%)	(8.6%)	(25.7%)	(△7.5%)	(4.2%)
아파트	전국	94.1	96.9	102.5	103.4	104.2
	(증감율)	(1.6%)	(3.0%)	(5.8%)	(0.9%)	(0.8%)
	강남	89.6	93.2	104.5	110.8	114.4
	(증감율)	(0.4%)	(4.0%)	(12.1%)	(6.0%)	(3.2%)



□ 시가총액 증가량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크고('12~'16년 5년간 총 678.6조원 증가) 증가 속도는 코스닥이 가장 빠름

<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시가총액 추이 (단위 : 조원) >

	'12말	'13말	'14말	'15말	'16말
코스피	1154.3	1186	1192.3	1242.9	1308.4
코스닥	109.1	119.3	143.1	201.6	201.5
주택	3053.4	3171.4	3334.8	3512.0	3732.0



< (참고 2) 韓·美 주가지수 비교 >

- 코스피는 NYSE와 유사하나,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코스닥은
지난 '15년간 정체 추세 지속

<< 한 국 (코스피 및 코스닥) >>



<< 코스피 및 뉴욕증권거래소 지수 >>



<< 코스닥 및 나스닥 >>

